

지역 소식 통

부안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부안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자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군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군민건강 보호를 위해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다.

부안군은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한 대기질 정보표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불법소각 집중감시, 집중관리 지정 도로 청소 강화를 통하여 비산먼지 감축을 위해 노력한다.

주요 추진과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생활폐기물 및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단속, 집중관리도로 지정 운영, 실시간 대기질 정보 표시장치 운영 등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도 대중교통 이용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 선운산 유스호스텔 연말연시 특별 이벤트

고창군 선운산 유스호스텔이 12월15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주중(일요일~목요일) 이용객을 대상으로 객실과 부대시설 요금을 50% 할인해 제공한다.

사계절이 모두 아름답지만 특히 흰눈이 소복한 설경이 빼어난 고창 선운산 그리고 유네스코가 인정한 7가지 세계유산의 겨울을 경험하는 관광객들과 가족, 친구, 동호회 다양한 모임으로 연말연시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이벤트를 계획하였다.

이번 특별한 이벤트 예약은 고창군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이나 전화(063-561-3333)로 예약가능하고 주중 숙박료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반헌법적 계엄령 선포 강력 규탄”

정읍시의회,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성명서 발표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령 선포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읍시의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위헌적·위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과 반국가 세력의 적결을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이자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령 선포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 탄압 행위를 다시 한번 강조, 계엄령 관련자들의 실체를 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의회,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성명서 채택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

고창군의회(의장 조만규)는 5일 본회의장에서 지난 3일 밤 10시 25분에 발생한 위법한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긴급 담화 발표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법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중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한 명목이었지만, 이번 비상계엄령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이다.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 선포는 단순한 위헌과 불법을 넘어 ‘헌법’ 제87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명백히 헌법의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완벽한 탄핵 사유이다. 이에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 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 비상계엄 선포 강력규탄 성명서 발표

부안군의회(박병래 의장)는 5일 오전 10시 의회 1층에서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부안군의회 의원, 언론인, 군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권력을 남용한 내란행위”라고 규정하고,

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중북 반국가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나, 이번 계엄 사태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명백히 위헌이며,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박병래 의장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계엄선포는 독단적인 반민주적인 독

재 행위’라며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국민앞에 사죄하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든 관계자들은 헌정 질서 파괴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가 백제(사비기) 시대 중방성으로 비정되는 고사부리성의 정비와 복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개최, 발굴 조사와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정읍의 역사적 정체성을 재조명했다.

‘고사부리성 복원 · 활용 방향’

정읍시, 고사부리성 학술대회 성료… 조사성과 · 의의 발표

정읍시가 백제(사비기) 시대 중방성으로 비정되는 고사부리성의 정비와 복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학술대회를 개최, 발굴 조사와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정읍의 역사적 정체성을 재조명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학수 시장과 시의회 박일 의장, 문화유산 연구원 및 관련 연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권오영 서울대 교수의 ‘고사부리성을 어떻게 보존,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권오영 교수는 “고사부리성의 중요성과 보존·활용 방안을 통해 정읍의 대표 역사문화자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 학술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이종화 전라문화유산연구원장이 ‘고사부리성의 조사성과와 의의’ 발표에서 발굴된 성벽과 성문, 집수시설 등을 정리하며 성과를 발표했다.

김병남 전북대 교수는 “문헌으로 본 고사부리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김 교수는 문헌을 통해 마한·백제 시대부터 고려, 조선 후기까지 고사부리성의 변천사를 조망했다.

성정용 충북대 교수와 김환희 국립원주문화유산연구원원은 ‘고사부리성의 정비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비 현황을 바탕으로 유적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역사적 가치를 제고할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서정석 공주대 교수는 ‘고사부리성에 대한 향후 조사방향’이라는 발표에서 앞으로의 조사 방향에 대해 발굴과 성벽, 건물지 조사를 토대로 심도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백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고사부리성의 명확한 정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넘어 정읍의 정체성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의견이 제시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환경 현장 점검… 청결 도시 다짐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4일 환경시설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이 시장은 시의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화센터 △광역매립장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관리 시설을 점검하고, 준공 이전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준비를 다지는 일환으로 매주 1회 실시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이



시장은 “학취 방지를 위해 근무자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매일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화시설에서는 출입문 확장의 필요성을 청취하며 “재활용품 수거 차량의 안전한 출입과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히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